

전남 햇김 유례없는 흉작

고수온에 작황 부진... 위판물량 작년 29% 불과

가격 올랐지만 물량 없어 거래 안돼... 어민 울상

바닷물이 뜨거워져 대표적 김 생산지인 전남지역의 햇김 작황이 유례없는 흉작이다.

21일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최근 해남과 진도 등지에서 햇김 채취에 들어갔지만 고수온으로 작황이 매우 부진하다.

햇김 주산지인 해남수협은 올해 위판 물량은 9038포대(포대당 120kg)로 지난해 3만1480포대의 29%에 불과하다. 예년 같은 경우 하루에 1500여 포대 이상 위판돼야 하지만 올해는 10~20포대에 머물고 있다. 위판 가격도 한 포대에 18만원선으

로 지난해 12만~14만원보다 크게 올랐지만 물량이 없어 거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남지역 김 양식 어가는 3433가구로 전국(4928가구)의 70%가량을, 면적은 4만9401ha로 전국 5만4737ha의 90.3%에 달한다. 생산액은 무려 4100억원에 달해 해마다 이 시기가 되면 양식 어가들이 가장 바빠지만 올해는 개점휴업 상태다.

이 같은 흉작은 고수온 탓이다. 완도 해역을 중심으로 10월과 11월 평균 수온은 18.1~20℃로 지난해나 평년보다 1~3℃가량 높다.

김은 수온이 높으면 염체가 활력을 잃고 떨어지는 등 수온에 매우 민감하다. 치명적인 갯병도 쉽게 발병한다.

또 올해는 예년과는 달리 거센 바람도 거의 없어 조류 흐름이 더딘데다 비는 오지 않아 수온 상승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강우량이 적으면 그만큼 영양염류 공급이 부족해 초기 김 염체가 크는 데 큰 지장을 준다.

전남해양수산과학원 관계자는 “수온이 예년 수준을 되찾아도 탈락한 염체가 다시 재생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한편 수산과학원은 이 같은 고수온으로 평년보다 심어 일 일찍 설치한 미역 양식장은 어린 염체가 탈락하고 포자가 녹아내려 생산량이 30~40% 가량 감소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장애인 차량탐승 편하게...

21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 국제실버박람회에서 강운태 광주시장이 휠체어를 타고 장애인 이동 차량에 오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호남권 생물자원관’ 내년부터 본격 추진

주영순 의원 “타당성 통과”... 목표에 755억 들여 건립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미흡 평가를 받은 호남권생물자원관 건립 사업이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은 2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타당성재조사 결과, 사업타당성 종합평가가 아직 남아있지만 경제적타당성(B/C)이 5.

14로 그동안 사업추진의 걸림돌이었던 경제성 부분을 말끔히 해소했다”며 “타당 재조사 결과, 경제성 시작으로 설계, 공사착공까지 연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목포시 남항매립지 일원에 5년간 국비 755억원을 들여 건립될 호남권

생물자원관은 지난해 8월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B/C가 0.61이 나오면서 정부의 내년 예산지원 사업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이번에 재조사 결과, 경제성이 입증돼 국회의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반영될 가능성이 커졌다.

주 의원은 “호남권생물자원관의 내년 예산이 상임위와 예결위 논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hjpark@

잃어버린 대한제국 국새 돌아온다

고종 어보 등 9점 먼저 압수... 내년 6월 국내 반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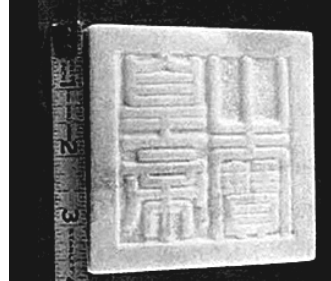
대한제국 국새인 황제지보(皇帝之寶)가 미국 수사당국에 압수돼 내년 6월 한국으로 돌아온다.

문화재청은 한국전쟁 기간 미군이 덕수궁에서 불법 반출한 대한제국 국새와 어보 등 인장 9점이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샌디에고에서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국(HSI·미국 수사국)에 압수됐다고 21일 밝혔다.

압수된 인장은 대한제국 국새인 황제지보, 순종이 고종에게 태황제(太皇帝)라는 존호를 올리면서 1907년 제작한 수강태황제보(壽康太皇帝寶), 조선왕실에서 관리임명에 사용한 유서지보(諭書之寶)와 준명지보(准明之寶), 조선 현종의 서화 감상인인 향천심정서화지기(香泉審定書畫之記) 등이다.

황제지보는 대한제국의 선조(1897년)를 계기로 제작된 것으로 고종황제의 자주 독립의지를 상징하는 국새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문화재청은 설명했다.

또 수강태황제보는 1907년에 고종황제가 수강태황제로 존봉(尊奉)되는 의식을 기념하고자



대한제국 국새인 '왕제지보(사진위)'와 인봉(印面).

제작된 것으로 상세한 내용이 응희원년존봉도감의계(隆熙元年尊奉都監監軌)와 고종가상존호옥책문(高宗可上尊號玉冊文)에 기재됐다.

문화재청은 “국새, 어보 등 인장 9점은 4개월 이상 소요되는 미국 수사당국의 물수절차를 거쳐 내년 6월 국내로 반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전남도 공직비리 사전감시시스템 도입

전남도는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사전감시시스템을 도입한 ‘전남도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규칙’을 제정해 21일 공포했다.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재정, 인사, 인·허가 등 5대 지방행정시스템을 연계한 전산 프로그램을 구축해 교차검색을 통해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와 행정오류를 잡아낼 계획이다. 또 비리 발생이 우려되는 업무를 선정해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직자 스스로 자기진단을 하고 공직윤리관리 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알림

희망 2014 나눔 캠페인

‘작은 기부, 사랑의 시작’

한국신문협회(회장 김재호)는 회원사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 말 어려운 이웃을 돕기위한 성금 모금을 시작합니다. 모금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고루 전달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성금접수를 원하시는 독자께서는 아래 성금 모금 계좌로 직접 송금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문사에서는 성금을 직접 접수하지 않습니다)

◇모금기간: 2014년 1월 31일까지
◇모금계좌
▲광주: 광주은행(013-107-373402)
예금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광주광역시지회(062-222-3566,3569)
▲전남: 농협(301-4000-3000-01)
예금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전남지회 (061-902-6800)

한국신문협회 · 光州日報社

전남대생 600명이 만든 ‘기숙사 빛의 오케스트라’

작가 안나 리스폴리 ‘집에 가고 싶어’ 함께 만들어

문화전당 예술극장 시민참여공연... 다음달 6일

문화중심도시 광주의 주역이 될 대학생 600여명이 ‘빛의 선율’을 선보인다.

아시아문화개발원은 “다음달 6일 밤 7시에 광주시 북구 전남대학교 기숙사에서 안나 리스폴리(이탈리아)의 작품 ‘집에 가고 싶어’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작가 안나 리스폴리와 전남대 기숙사(생활관)에서 생활하는 학생 600여명이 참여하는 대중참여

형식의 예술(커뮤니티 퍼포머티비티·Community Performativity)이다. 학생들은 작풍 기체·제작, 실제 공연까지 진행한다.

학생들은 전남대 오케스트라의 연주에 맞춰 각방의 불을 끄거나 켜면서 빛의 오케스트라를 만든다. ‘A동, B동, 혼자사는 방만, 1층, 2층, 3층, 경상도, 충청도 분들만 깜빡깜빡 불을 켜주세요’라는 주문에 따라 자신이 머물고 있는 각

방의 스위치를 조작해 조명을 끄거나 켜는 형식으로 20여분 동안 공연을 진행한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빛은 마치 모리스 부호처럼 일정한 메시지를 내 보내고 건물 전체가 빛의 리듬으로 춤추듯 생명력을 얻게 된다.

작가 안나 리스폴리는 주민들의 거주공간을 무대로 해당 주민들이 참여하는 대중예술을 선보이는 대표적 아티스트다.

이 작품은 2015년 개관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예술극장이 시범공연 형식으로 제작한 것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

경력 사원 모집공고

건설산업의 미래를 열어가길 성실하고 능력있는 사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분야 및 자격요건

모집분야	인원	자격요건
건축	0명	· 관련학과 전공 및 경력자 · 자격증 소지자 · 공동주택 유경험자
안전관리	0명	
품질관리	0명	
조경	0명	

2.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 접수방법: 우편 및 이메일 접수
- 접수기간: 2013. 12. 01. ~ 2013. 12. 10.
- 서류접수 후 면접일자 개별 통보

3.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기술인협회)

4. 접수처

-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능성동 639-7 광신빌딩 2F
- E-mail: ks71700@hanmail.net
- 담당: 이수희 대리
- 문의처: 062-365-7172

5. 기타

-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의처에 문의바랍니다

(주)광신주택 (주)광신종합건설

백운동 까치고개 (동아일보 사옥)

메디칼센터 임대 (병.의원) 임대

2층 : 양·한방 입점 완료
3층 : 피부과·비뇨기과,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안과 등 입점 가능

넓은 주차장(80대주차가능) / 저렴한 임대비

문의 | 062) 651-6581
010-3690-7790

선암동 전원 주택용지분양

자연과 함께 하는 **어등산 빌리지**

광산구 선암동 414-17번지 일원
분양면적 7008㎡(87가구)
분양가격 전용면적 평당 130만원
각 필지 면적 약150평~420평(분할·협병가능)
현 토목공사 90%진행중

70% 분양완료!

단지설명 **자연속 힐링 주거단지**

1. 분양면적은 전체가 쓸 수 있는 전용면적입니다.
2. 각 필지별 상·하수도관려 연결공사 완료
3. 각 필지별 건축허가 완료(각종세금 납부완료)
4. 각 필지별 6m도로 접

찾아오시는길: 선암지구, 영광, 어등산 빌리지

도심속 친환경 명품주거타운

선운공인중개사 010-2475-0933 / 010-5166-0013

신협을 알아야 재테크의 완성!

1인당 예금비과세 3,000만원
(생계형 / 세금우대 별도)

대출한도 25억원

한도는 높게 ↑ 최대 ~80%
금리는 낮게 ↓ 최저 4.3%~

광주원광신협
대표전화 1599-4474
공동본점 | 금호지점 | 풍암지점